

# 문장의 주요 성분

이홍식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1. 문장성분의 성격과 종류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구실을 하는 요소를 문장성분이라 한다. 문장은 문장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장성분이 될 수 있는 말의 단위는 단어, 어절, 구, 절이다. 조사는 단독으로는 문장성분이 될 수 없고 반드시 체언이나 체언의 구실을 하는 말에 붙어서 그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문장의 성분이 된다. 문장성분에는 주성분과 그에 딸린 부속성분이 있다. 주성분은 문장 성립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것이 빠지면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주성분에는 주어[임자말], 서술어[풀이말], 목적어[부림말], 보어[기움말]가 있다. '무엇이(또는 누가) 어찌한다(또는 어떠하다, 무엇이다)'의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 주어이고,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이 서술어이다.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의 형식을 취할 때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 목적어이다. '되다, 아니다'의 앞에 오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은 보어가 된다. 아래 문장에서 '아이들이, 물이, 국이, 저 사람이, 그가'는 주어이고 '던진다, 된다, 짜다, 아니다, 주인이다'는 서술어이다. '공을'은 목적어이고 '얼음이, 주인이'는 보어가 된다.

- (1) 가. 아이들이 공을 던진다.  
나. 물이 얼음이 된다.  
다. 국이 짜다.  
라. 저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마. 그가 주인이다.

한편,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데 아무 기여를 하지 못하고 다른 성분에 딸려 있는 말을 부속성분이라 한다. 부속성분은 문장의 성립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의적 성분이라고도 한다. 부속성분에는 관형어 [매김말]과 부사어[어찌말]이 있다. 이 밖에 독립성분인 독립어[홀로말]이 있다. 이 말은 그 뒤엣말에 부속되지 않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립되어 있다. 아래 문장에서 ‘새’는 관형어이고 ‘몽땅’은 부사어이다. ‘아차’는 독립어가 된다.

- (2) 가. 그가 새 옷을 몽땅 집어갔다.  
나. 아차, 내가 지갑을 잃었구나.

한 단어로 된 문장성분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장성분도 가능하다. 아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장성분이다.

- (3) 가. 우리 집이 여기서 별로 멀지 않다.  
나. 무엇이 바빠서 그리 빨리 가느냐?  
다. 그 꽃송이가 무척 탐스럽다.  
라. 그 집 앞에 아주 새 차가 한 대 서 있었다.  
마. 오늘은 웬일인지 차가 무척 빨리 달리는 것 같았다.

문장성분은 대개 어절을 단위로 한다. 그런데 성분론은 분석 단위의 설

정에서 문제를 드러낸다.

(4) 예쁜 학생이 왔다.

(4)에서 ‘예쁜’은 관형어이고 ‘학생이’가 주어라고 분석하는 것은 ‘예쁜’이 주어를 수식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학생이’를 주어로 보는 것은 ‘예쁜 학생이’가 실제로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즉 관형 성분이 주어나 목적어, 보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를 수식한다는 것을 전혀 보여 주지 못한다. 또한 주어가 하나의 단어나 어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어절 중심의 성분론이 갖는 문제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절이 국어 문장에서 전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순재배치는 어절이나 어절보다 큰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관형 성분은 후행하는 어절 전체를 수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 (5) 가. 예쁜 학생이  
 나. 예쁜 학생을  
 다. 예쁜 학생에게

(5)에서 조사와 관형 성분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 ‘예쁜’은 ‘학생’을 수식한다고 보아야 한다. 조사는 관형 성분과 명사가 결합하여 형성한 명사구 전체에 연결되는 것이다.

(6) [예쁜 학생]이/을/에게

그러므로 위와 같이 분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문법의 성분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변형

생성 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다.

(7) [KP [NP [예쁜] 학생] 이 ]

(7)에서 보듯이 변형생성문법에서는 어휘 범주와 기능 범주를 문법 기술에 활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성분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런 식의 분석이라면 주어나 목적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관계의 결과로 기술할 수 있다. 실제로 변형생성문법의 틀에 기댄 논의들에서 이런 방식의 분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서술어의 경우에도 선어말어미나 어말어미를 독자적인 통사단위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유지하기 어려운 개념이 된다. 선어말어미나 어말어미는 용언의 어간과만 관련을 갖지 않는다. 문장 전체와 관련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어미를 용언의 어간과 결합한다고 기술할 수 없으며 독립된 통사단위로 기술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술어라고 하는 성분은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은 보어에 관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학교문법에서 ‘되다’와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만을 보어로 인정하는 것은 편의적인 처리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보어를 부가어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에 보어에 있어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고 하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수의적인 성분인 부가어와 대립된다.

## 2. 주어

서술어에 의해 서술되는 대상을 주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전통적인 주어의 정의라고 한다면 이 정의는 주어에 대해 별로 알려주는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주어를 어떤 특성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기술하려는 노력도 나타났다. 이러한 시도의 문제점은 모든 주어가 같은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확실한 주어의 확인에는 역시 어려움이 있으나

주어가 갖는 특성을 중심으로 주어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주어는 체언 상당 표현과 조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8) 가. 철수가 도둑질을 했다.

나. 철수가 도둑질을 했음이 밝혀졌다.

(8가)에서 주어는 체언 ‘철수’와 주격조사 ‘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8나)에서 주어는 체언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 ‘철수가 도둑질을 했음’과 주격조사 ‘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주어를 표시하는 조사는 일반적으로 ‘이/가’이다. 그러나 주어가 존칭의 체언일 경우에는 ‘께서’가 사용된다. 그리고 단체주격이라고 알려진 ‘에서’가 있다.

(9) 가. 철수가 왔다.

나. 선생님께서 오셨다.

다. 정부에서 강력한 증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가’. 나는 철수가 보인다.

나’. 나는 할아버지께서 보인다.

다’. 정부에서 증권감독원장이 강력한 증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다”. ??정부에서 강력한 증시 안정 대책을 발표한 대변인

(9가)에서 ‘철수’가 존칭 체언이 아니므로 ‘가’가 사용된다. (9나)에서는 ‘선생님’이 존칭 체언이므로 ‘께서’가 사용된다. 그런데 (9나’)에서 알 수 있듯이 주격조사 ‘이/가’가 사용되는 모든 환경에 ‘께서’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에서’가 주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9다’) 문장에서 주어인 ‘증권감독원장’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관계화시킨 (9다”) 문장은 어색하다. 따라서 (9다) 문장의 ‘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에서’와는 이미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격 조사는 생략되거나 주격 조사가 나타날 자리에 특수조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10) 가. 철수 집에 왔니?

나. 철수도 집에 왔니?

조사가 주어를 표시한다면 왜 생략되는가? 또한 특수조사가 나타날 때 생략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이 없다. 주격 조사가 격만 표시하기 때문에 생략되기 쉽다고 하나 격만을 표시하는 형식이 사라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격조사가 있는 구성과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은 구성은 미세한 의미의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어는 문장의 앞에 나타난다. 그러나 국어의 경우에는 비교적 어순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를 분명한 주어의 특성이라고 하기 어렵다

(11) 가. 철수가 학교에 왔다.

나. 의자에 다리가 있다.

가'. 학교에 철수가 왔다.

나'. "다리가 의자에 있다.

(11가)에서 주어는 문두에 있다. 특별한 통보적 목적이 아니면 이 어순이 가장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의자에'가 문두에 나온 (11가') 역시 가능하지만 강조의 목적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주어가 문두에 오지 않은 (11나)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주어가 문두에 나온 (11나')은 자연스럽게 않다.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이 화자의 상위자일 때는 대개 '-시-'가 결합된다.

(12) 가. 선생님이 오신다.

나. 선생님의 손이 크시다.

다. 선생님이 손이 크시다.

(12가)는 주어인 ‘선생님이’와 ‘-시-’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12나, 다)의 경우에는 ‘손이’가 ‘-시-’에 의한 존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선생님’을 존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간접존대라고 하기도 한다.

재귀사로 간주되는 ‘자기’의 선행사는 대개 주어이다.

(13) 가. 철수가 자기를 미워한다.

가' \*철수를 자기가 미워한다.

나. 철수에게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

(13가)의 경우는 주어와 재귀사가 관련된다. (13가')처럼 재귀사의 선행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는 비문이 된다. 그런데 (13나)처럼 부사어가 재귀사의 선행사가 될 수도 있다.

복수 표지 ‘-들’은 주어가 복수일 경우에 부사어에도 연결될 수 있다.

(14) 가. 사람들이 많이들 왔다.

나. 너희들도 어서들 먹어라.

다. 순이가 아이들을 그 방으로들 보냈다.

(14가, 나)에서 주어는 복수인데 ‘-들’은 부사어에도 결합된다. 그런데 (14다)에서 ‘-들’은 주어가 단수인데도 나타나는데 이는 목적어인 ‘아이들을’과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에 주어가 1인칭이면 선어말 어미 ‘-더-’의 출현은 제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가. ??내가 밥을 먹더라.

나. 철수가 나를 때리더라.

나' ??내가 철수한테 맞더라.

꿈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어가 1인칭인 경우에 ‘-더-’의 출현은 제약된다. (15가)의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15나)는 가능한데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15나’)은 주어가 1인칭이라서 어색하게 느껴진다.

주어의 의미역은 일정한 위계를 가진다.

(16) 가. 꽃이 노랗다.

나. 철수가 웃는다.

다. 철수가 영희를 때렸다.

서술어의 의미역이 하나이면 (16가, 나)에서처럼 그것이 주어가 된다. 둘 이상일 경우에는 (16다)에서처럼 대상역보다 동작주역이 우선한다.

특정한 부사어는 주어와 관련된다. 특히 동작주의 의도와 관련되는 부사어는 주어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17) 가. 철수가 일부러 집에 갔다.

나. 철수가 일부러 손을 잡혔다.

나’. \*철수가 일부러 손이 잡혔다.

(17가, 나)에서 ‘일부러’는 주어의 의도를 나타낸다. (17나)의 경우는 피동문인데 ‘일부러’가 나타난다. 이 경우도 주어의 의도를 나타낸다. (17나’)는 성립하지 않는데 이는 ‘철수가’를 주어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통제구문의 내포문 주어는 주절의 성분에 의해 통제되는 현상이 있다.

(18) 가. 철수가 동생에게 집에 가라고 설득했다

나. \*철수가 동생에게 영희가 집에 가라고 설득했다.

‘설득하다’와 같은 동사에 의한 통제구문에서 내포절의 주어는 비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그래서 내포문에 주어가 나타난 (18나)는 비문이 되는 것이다.

주격조사가 나타나지만 주어로 보기 어려운 구성이 있다.

(19) 가. ?종이 세 시간이 올렸다  
나. 차가 가지가 않는다.

(19가)는 시간 부사어에 ‘이’가 나타난 것인데 주어로 간주할 수 없다. 보조적 연결어미 ‘-지’ 뒤에 ‘가’가 연결된 (19나)의 ‘가지가’ 역시 주어로 보기 어렵다.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주어 없는 문장이 가능하다.

(20) 가. 고생 끝에 낙을 본다.  
나. 열에서 둘을 빼면 여덟이다.

이들 문장에 대해 보이지 않는 주어를 상정하는 논의도 있고 무주어문의 존재를 인정하는 논의도 있다.

## 2.1. 목적어

목적어는 체언 상당 구성과 대격조사 ‘을/를’로 이루어진다. 대격조사를 목적격조사로 부르기도 한다.

(21) 가. 철수는 공을 던졌다.  
나. 나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를 바란다.

(21가)에서 목적어 ‘공을’은 명사 ‘공’과 대격조사 ‘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다. (21나)에서 목적어는 명사절과 대격조사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대격조사가 반드시 목적어에만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 (22) 가. 종이 세 시간을 올렸다.  
나. 철수가 3일 동안을 물을 먹지 않았다.  
다. 철수가 집에 가지를 못했다.

위 예문에서 대격조사는 대격을 표시하지 않는다. 특수조사적인 용법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격조사는 생략되거나 특수조사와 대치되기도 한다.

- (23) 가. 철수가 밥 먹었다.  
나. 철수가 밥만 먹었다.

조사가 목적어를 표시한다면 왜 생략되는가? 주격조사의 경우처럼 문법적으로 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잉여적인 경우에 생략된다고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격만 표시하는 요소가 어떻게 생략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다.

- (24) 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나.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예문 (24가)에서 목적어인 ‘도둑을’은 (24나)에서처럼 피동문 주어에 대응된다.  
둘 이상의 절이 목적어를 공유할 수 있다.

- (25) 가. 철수는 고기를 구워 먹었다.  
나. 철수는 사과를 꺾어 먹었다.

(25)에서 ‘고기를’과 ‘사과를’은 두 서술어에 의해 공유된다.

목적어는 내포문의 주어와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26) 철수는 영희를 집에 가게 했다.

(27) 가. 철수는 영희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나. 철수는 영희를 예쁘다고 생각한다.

(26)에서 목적어인 ‘영희를’은 내포문의 보이지 않는 주어와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27나)는 (27가)의 내포문 주어인 ‘영희가’ 주절의 목적어로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절의 목적어 ‘영희를’이 내포문의 보이지 않는 주어와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적어는 주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경계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28) 가. 철수는 학교엘 갔다.

나. 철수는 학교를 갔다.

다. 철수가 매를 맞았다.

라. 철수가 다리를 진다.

(28)의 문장에서 대격조사가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인 동작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화자에 의해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성격이 해당 성분에 부여되며 이를 대격조사가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목적성 목적어 구문과 목적어 있는 피동문도 목적어 확인에 문제가 된다.

(29) 가. 철수가 영화 구경을 갔다.

가. 철수가 영화 구경을 하러 갔다.

나. 철수가 영희에게 다리를 잡혔다.

예문 (29가)에서 ‘영화 구경을’은 ‘가다’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9가’)과 같은 문장에서 ‘하러’가 생략되어 (29가)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29나)의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피동사 ‘잡히다’가 다시 목적어를 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다리를’이 주제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잡히다’가 어휘화되어 타동사로서의 용법을 갖는 것으로 분석하여 목적어로 볼 수도 있다.

이중 목적어로 불리는 구성에서 어떤 명사구를 목적어로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목적어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 (30) 가. 철수는 영화를 다리를 잡았다.(전체-부분 구성)
- 나. 철수는 라면을 농심 라면을 먹었다.(부류-성원 구성)
- 다. 철수는 꽃을 세 송이를 샀다.(수량사구 대격 구성)
- 라. 철수는 영화를 선물을 주었다.(수혜주 대격 구성)
- 마. 철수는 나무를 책상을 만들었다.(만들다 구성)
- 바. 철수가 수학을 공부를 한다.(어근 대격 구성)

(30가)에서 ‘영화를’과 ‘다리를’ 둘 다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영화를’이 진정한 목적어가 아니고 부가된 성분일 가능성이 크다. (30나, 다) 역시 둘 중의 하나만 목적어로 생각된다. (30라, 마)는 대격조사를 동반한 성분 둘 다 필수적인 성분이므로 둘 다 목적어로 볼 수 있다. (30바)의 경우는 ‘공부를 하다’가 복합 서술어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 2.2. 보어

학교 문법에서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나타나는 성분이다.

- (31) 가. 철수는 학생이 되었다.
- 나. 철수는 바보가 아니다.

그러나 ‘되다, 아니다’ 앞의 명사구를 주어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는 ‘되다, 아니다’ 앞의 명사구가 주격조사를 동반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하나의 형태가 하나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것은 보어의 지위가 다른 성분에 비해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보어라고 한다. 학교문법에서 부사격조사가 결합한 명사구를 부사어로 분석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부사어가 수의적인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된다.

아래 문장은 ‘에’, ‘에게’, ‘로’가 결합한 보어들이다.

(32) 가. 철수는 집에 갔다.

나. 철수는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다. 철수는 감옥에서 탈출했다.

라. 이 옷은 흰색에서 검은 색으로 변했다.

마. 철수는 학교로 갔다.

바. 철수는 영희를 바보로 생각한다.

사. 철수는 나무를 책상으로 만들었다.

아. 철수는 나무로 책상을 만들었다.

자. 철수가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왔다.

예문 (32아)의 ‘나무로’도 필수적인 성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역시 온전한 문장의 의미를 위해서는 보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2자)의 ‘학교에서 집까지’와 같은 이동의 경로를 하나의 논항으로 간주하면 이것 역시 하나의 보어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를 시발점으로 ‘집까지’를 도착점으로 간주한다면 이동동사는 보어를 두 개 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격조사를 취하는 보어가 있다.

(33) 가. 철수는 호랑이가 무섭다.

나. 철수는 범인이 맞다.

(33가, 나)에서 주격조사를 취한 명사구들은 보어로 분석될 수 있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때 ‘이/가’를 학교문법처럼 보격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미론적으로 복수의 대상을 요구하는 서술어의 경우에는 조사 ‘와’가 결합된 성분을 보어로 취할 수 있다. 이것은 순수히 통사적인 요구는 아니다.

(34) 가. 철수는 나와 싸웠다.

나. 철수는 나를 영수와 비교했다.

가’. 우리는 싸웠다.

나’. 철수는 우리를 비교했다.

(34가, 나)는 주어나 목적어에 복수의 의미를 가진 명사구가 오면 ‘와’가 결합된 명사구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한다.

보어를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다음의 밑줄 친 성분도 보어로 분석된다.

(35) 가. 나무 색깔이 누렇게 변했다.

나. 꼬마가 성가시게 군다.

(36) 가. 그는 나를 떠나고 말았다.

나.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다.

(37) 가. 철수는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다.

나. 철수는 공부를 하겠다고 영희에게 약속했다.

다. 철수는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라. 철수는 영희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35가)에서 ‘누렇게’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35나)에서도 ‘성가시게’가 빠지면 역시 비문이 된다. 보조용언 구성에 대하여 보조용언을 상위문의 본동사로 보고 이 본동사가 보문을 취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36가, 나)에서 ‘말다, 버리다’는 보문을 취하는 모문의 본동사가 된다. 학교문법에 따르면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함께 서술어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논의에 따라서는 본용언 구성 전체를 보조용언의 보어(보문)나 부사절로 분석하기도 한다.

(37가)와 같은 구문에서 이동동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절인 ‘공부를 하러’를 보어로 간주하기도 한다. ‘-러’에 의해 이끌어지는 절은 주절의 동사와 특수한 의존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해서 보어로 분석하는 것이다.

보어는 특별한 표지가 없다. 부사격 조사가 연결된 명사구가 다 보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 부사격 조사가 붙은 성분 중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보어가 되는 것이다. 이는 주격조사나 대격조사가 붙는 명사구가 대개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 2.3. 서술어

서술어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 용언 어간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고 어미에는 선어말어미, 어말어미가 있다. 용언의 어간과 어말어미만 결합하여 서술어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선어말어미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어간과 어말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서술어가 성립한다.

(38) 가. 철수는 학교에 갔다.

나. 국이 짜다.

(38가)에서 서술어는 용언 어간 ‘가-’, 선어말어미 ‘-었-’, 어말어미 ‘-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38나)에서 서술어는 형용사 어간 ‘짜-’와 어말어미 ‘-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학교문법에서는 용언 외에도 명사에 서술격조사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되는 것을 허용한다.

(39) 철수는 학생이다

‘이-’를 계사, 잠음씨(지정사), 형용사로 분석하기도 하며 접미사, 활용어미로 분석하기도 한다.

서술어는 대개 문장의 가장 뒤에 위치한다.

(40) 가. 철수는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나. 영희에게 철수는 선물을 주었다.

다. 선물을 철수는 영희에게 주었다.

라. 선물을 영희에게 철수는 주었다.

(40)에서 다른 성분들이 위치를 바꾸어도 서술어 ‘주었다’는 문장의 가장 뒤에서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

학교문법에서는 서술절을 인정한다.

(41) 철수는 손이 크다.

(41)에서 ‘크다’는 ‘손이’의 서술어이며 ‘손이 크다’는 ‘철수는’의 서술어, 즉 서술절이 된다. 명사절이나 관형절은 ‘-고, -기, -나, -르’와 같은 표지를 가지지만 서술절은 표지가 없고 명사절이나 관형절은 품사 명칭이나 서술절은 성분 명칭이라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은 서술어가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다.

(42) 가. 우리는 조국의 방패

나. 우리 등반대가 정상을 정복

다. 나비는 나폴나폴 벌은 웅웅

라. 정부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 연말에 집행할 예정이다.

마.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직장에 들어갔다.

바. 회의를 진행 중이다.

사. 철수는 요양을 목적으로 시골에 갔다.

(42가)에서는 ‘-이다’, (42나)에서는 ‘-하다’가 생략되었다고 기술한다. (42다)에서는 ‘-거리다’ 정도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2라)에서는 ‘-하여’, (42마)에서는 ‘-한’, (42바)에서는 ‘-하는’ 정도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2사)에서는 ‘하여’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는 그러한 생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43) 가. 1월에 꺾 간 돈이 10만원에 2월에 꺾 간 돈이 20만원에 3월에 꺾 간 돈이 40만원이니까 모두 70만원이다.

나. 이들 형제는 영수가 형이고 철수가 동생으로 둘 다 체육을 잘 한다.

(43가, 나)에서 ‘10만원에’, ‘20만원에’나 ‘동생으로’에 ‘에, 으로’가 없다면 서술격조사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에, 으로’에 ‘이다’가 결합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명사가 그 자체로 서술어가 될 수 있다고 기술해야 할 것이다.

서술어는 대개 단일한 용언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서술격조사와 명사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둘 이상의 용언이 모여 서술어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보조용언 구성이 그것이다.

(44) 가. 영희가 나를 떠나 버렸다.

나. 나는 집에 가고 싶다.

학교문법에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를 구성한다고 기술한다. 이는 보조용언 구성이 단문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조용언이 본용언 구성을 내포절로 안은 것으로 기술하는 논의가 많다.

서술성 명사와 기능동사가 합쳐서 서술어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45) 가. 철수가 영어를 공부를 한다.

나. 도시가 폭파가 됐다.

다. 영희는 철수와 친구이다.

라. 정부는 이라크와 협상을 벌인다.

(45가)에서 ‘공부를 하다’는 서술어 하나로 목적어 ‘영어를’을 취한다. ‘공부’가 목적어 ‘영어를’을 취한다고 기술하나 서술성 명사 ‘공부’가 기능동사 ‘하다’와 결합하여 복합 서술어를 형성하고 이 복합 서술어가 목적어를 취한다고 기술한다. (45나)에서 ‘폭파가 되다’ 역시 서술어 하나를 형성하여 주어를 취한다. (45다, 라) 역시 복합 서술어로 분석될 수 있다.

서술어는 온전하게 문장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성분을 요구하게 되는 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의 수에 따라 한 자리 서술어(46가), 두 자리 서술어(46나, 다, 라), 세 자리 서술어(46마), 네 자리 서술어(46바)로 서술어를 나눌 수 있다.

(46) 가. 세월이 간다.

나. 물이 얼음이 된다.

다. 영희가 밥을 먹는다.

- 라. 철수가 깡패처럼 군다.  
 마.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바. 철수가 주소를 수원에서 서울로 옮겼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을 보어라고 하는 논의에 따르면 예문 (46)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인 주어, 보어, 목적어, 부사어는 모두 보어로 불러야 될 것이다. 그러나 학교문법에서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만을 보어라고 하고 서술어의 자릿수에 포함되는 부사어의 경우에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른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서울: 일지사.  
 교육부(1994), 『고등학교 문법』,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김민수(1957=1960), 『국어문법론 연구』, 서울: 통문관.(역대문법대계 11 98  
 재록)  
 김영희(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서울: 탐출판사.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 문법론(개정판)』, 서울: 탐출판사.  
 남미혜(1996), 「국어의 동사연속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류구상 외(2001), 『한국어의 목적어』, 서울: 월인.  
 민현식(1993), 「성분론의 문제점에 대하여」, 『선청어문』 21, 서울대 국어교육과.  
 서정수(1994), 『국어문법』, 서울: 뿌리깊은나무.  
 유형식(1996), 『국어 타동구문 연구』, 박이정.  
 윤평현(1994), 「국어의 보어에 대하여(1) - 학교문법체계를 중심으로 -」, 『어문논총』 14:15,  
 이관규(2003), 『학교문법론』, 서울: 월인.  
 이광호(1990), 「목적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 동아출판사.

-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국어연구』 133, 서울대 국어연구회.
- 이선희(1994), 「복합 술어 구문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욱(1969), 「주어의 통사에 관한 고찰」, 『국문학논집』 3(단국대).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 문법론』, 서울: 학연사.
- 이홍식(1998), 「문장성분」, 『문법 연구와 자료』, 서울: 태학사.
- 이홍식(2000),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 월인.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1』,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임홍빈·안명철·장소원·이은경(2001), 『바른 국어생활과 문법』,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정렬모(1946), 『신편고등국어문법』,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역대문법대계』 1 61 재록)
- 정인상(1980), 「국어의 주어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4, 서울대 국어연구회.
- 정인상(1990), 「주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 동아출판사.
- 최현배(1971), 『우리말본(네번째 고침)』, 서울: 정음사.
- 최호철(1995), 「국어의 보어에 대하여」, 『한국어학』 2, 한국어학연구회.
- 허 웅(1983), 『국어학-우리말의 어제·오늘』, 서울: 샘문화사.
- 홍기선(1993), 「한국어 대격의 의미」, 한국언어학회 여름 연구회 발표 논문.
- 홍기선(1994), 「Subjectivity Tests in Korean」, 『어학연구』 30-1, 서울대 어학연구소.
- 홍재성(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서울: 탑출판사.